

국제비교 가능데이터 구축*

-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

부 가 청**

I. 서론: 패널자료의 국제비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추세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대규모 조사연구의 흐름상에 등장하는 중요한 추세 중 하나는 데이터 생산국가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합시켜 국제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강석훈, 1997).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패널자료와의 비교연구에 활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서 설계되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국제비교를 위해 국가별 데이터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데이터베이스에는 LIS, LES, CHER, CNEF 등이 있다. LIS(Luxembourg Income Survey)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을 포함한 30개국의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모아놓은 데이터이다. LES(Luxembourg Employment Study)도 LIS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부터 유럽연합이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불균형 연구를 위해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용이하도록 각국의 노동관련 데이터를 일관성 있는 체계하에 재정리하기 위해 디자인된 프로젝트이다(LIS, LES 웹사이트 참조). CHER(Consortium of Household Panels for European Socio-Economic Research)은 1990년대부터 유럽 각국의 가구패널자료를 국제비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주요 수록내용은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교육관련, 고용 및 노동시장 활동, 소득과

* 이 글은 부가청·장지연(2006),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국제비교 활용 가능성」, 『조사연구』, 제7권 2호에 게재된 논문을 요약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자패널팀 연구원(nadinne@kdi.re.kr).

지출, 주거, 기타 사회적 관계들을 관련변수로 제공한다(CHER 웹사이트 참조). CNEF(Cross National Equivalent File)는 미국(PSID), 영국(BHPS), 독일(GSOEP), 그리고 캐나다(SLID) 가구패널의 핵심 변수들을 국제간 비교가능한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CNEF 웹사이트 참조; 이상호, 2006).

LIS, LES, CHER, CNEF는 현재 시점에서 국제비교를 원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기에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국제간의 비교가능한 연구를 염두해 두고 초반 설계 작업부터 함께한 데이터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국가별 데이터로 존재하다가 국제비교가 요구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나중에 모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국가별 핵심으로 중점을 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을 하면서 공통된 핵심 주제를 함께 정하고 다시 표준화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간 데이터 통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데이터를 완성하는 주기가 각기 다르며 해마다 주제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시기가 최대 2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있는 국가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도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다.

국제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간 비교연구뿐만 아니라 학제간 연구의 폭을 증대시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정수준의 표준화된 변수와 양질의 데이터로 인정받아야 국제간 비교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생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2006년 8월 1차 본조사가 시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유의하여 설계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선진국의 고령자 대상 패널자료

1. 선진국의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의 연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참고로 하는 조사는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이다. 1992년부터 시작된 HRS는 은퇴 전후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고용상태와 소득, 자산현황, 소비행태, 개인의 은퇴결정,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등을 은퇴 이전부터 시계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HRS 웹사이트 참조; 신동균, 1998). 이러한 미국의 HRS의 구축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영국과 유럽에 영향을 주었고, HRS를 벤치마킹하는 자료

로서 영국에서는 2002년부터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를, 유럽 13개국에서는 2004년부터 SHARE(Stud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라는 고령자 대상 패널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ELSA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을 중심으로 네 기관(Institute for Fiscal Studies,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이 협동하여 추진하는 조사이다. 초기에 5년간은 미국의 NIA(National Institute of Ageing)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영국의 8개 부처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50세 이상의 영국인 1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패널조사이다. NIA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사의 기본틀을 HRS를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유럽의 SHARE는 초기 11개국에서 출발하여 2004년 첫 해년도 조사를 마쳤고 현재 10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의 자료가 공개되었다.¹⁾

이상에서 소개한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의 네트워크가 서론에서 언급한 패널자료 통합DB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후자가 이미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유사한 자료를 모아 통합DB를 구축하였는데 비해서 전자는 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비교연구 가능성과 통합DB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설계·진행한다는 점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다른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의 연구책임자들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²⁾

<표 1> 주요국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 개요

	HRS	ELSA	SHARE	KLoSA
시행국가	미국	영국	유럽10개국 ¹⁾	한국
시작년도	1992년	2002년	2004년	2006년
조사주기	2년	2년	2년	2년 ²⁾
조사대상	50세 이상	50세 이상	50세 이상	45세이상
표 본 수	약 22,000명	약 12,000명	약 20,000명	약 10,000명
주관기관	University of Michigan	ELSA Team (Uni. College of London을 중심으로 4개기관 합동팀)	The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ing	한국노동연구원
재정지원 (Fund)	NIA(National Institute of Ageing)	NIA(미국)+영국의 8개 부처의 지원	EC(European Commission)과 NIA	노동부

주 : 1) 현재 데이터가 공개된 국가 기준.

2) 본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연도에 부가조사 실시.

1) 최근 EU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으로 EU 전국가를 대상으로 참여국가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HARE 연구책임자와의 면담내용).

2) 지금까지 고령화 연구자료의 통합DB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중인 자료는 미국 HRS, 영국의 ELSA, 유럽의 SHARE,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이지만, 일본과 중국, 태국도 유사한 조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들 자료도 통합DB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III.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첫째, 핵심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주요 영역이 비교대상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각각의 국가에서 제대로 포착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설문항목이 구성되어야 한다. 첫번째 조건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두번째 조건은 당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고령화 연구패널’이 시도한 구체적인 조사설계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연구 가능한 조사자료를 위한 두 가지 기본조건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핵심 주제를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기본틀

학제간 연구와 더불어 국제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핵심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각 나라의 다양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통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데이터의 효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국제비교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설문항목과 정의를 이용해야 한다(강석훈, 1997).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패널조사의 사전 경험을 벤치마킹하였고, 이 자료들이 조사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모두 포괄하였다.

미국의 HRS는 다른 나라보다 10여년 먼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여기서 생긴 노하우를 후발 데이터 생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SHARE와 영국의 ELSA는 HRS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설문문항 자체는 단순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유럽의 고령자 패널조사를 시작하였다. 2006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앞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화 연구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자료는 공통적으로 조사대상자의 고용상태와 소득활동, 자산규모뿐 아니라 가족구조와 가족간의 재정 및 돌봄노동의 교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습관, 주관적 의식상태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각각의 자료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분을 좀더 상세히 조사하기도 하고 특정 영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2>는 KLoSA를 중심으로 영역을 정리했을 때 HRS, SHARE, ELSA에서 포함하는 공통된 핵심 주제이다.

<표 2> KLoSA, HRS, ELSA, SHARE 의 공통 주제

인 구	인구학적 기본배경 변수
가 족	가족구조(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정보) 비동거가족의 경제적 지원, 돌봄의 교환, 근접성과 연락빈도
건 강	만성질환 여부와 치료, 노후징후, 건강관련 습관(음주, 흡연 등), BMI, 인지력, 신체능력 측정,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IADL), 의료시설 이용 및 의료비 지출
고 용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특성과 만족도, 은퇴계획 고용형태별 상세질문(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은퇴자, 구직자)
소 득	소득원별 소득액(근로소득, 사회보장소득, 사업소득 등)
자 산	부동산, 금융자산, 상속/증여
주관적 기대감	기대수명, 개인의 미래전망, 사회의 미래전망, 삶의 만족도

2. 국가별 관습적·제도적 차이를 반영한 설문문항의 개발

국제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공통된 주제를 모두 포함시키되, 각각의 세부 항목은 개별 국가의 제도적·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설문은 오히려 각 국가의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비교연구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있어 세부항목을 개발하는 과정은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현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제도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의 차이점들이 설문 구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관행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흔히 사용하는 용어나 인식의 차이도 포함된다. 이 절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어떻게 설문지 설계에 반영하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설문항목의 조정이나 응답단위의 선정방식을 통해서 반영되기도 하고 적합한 방식의 척도개발을 통해 구현되기도 한다.

고령화연구패널(KLoSA)은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하여 하나의 측정도구로서의 설문문항이 우리나라 고연령 응답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응답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하였고, 그 결과를 본조사의 설문에 반영하였다. 여

기서는 그 중 몇 가지만을 사례로 소개한다.

가. 응답단위 선정 :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설정

HRS, ELSA, SHARE,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을 패널로 하는 조사이다.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가구원으로서의 개인을 조사하는 가구패널과는 달리, 개인패널은 개인을 단위로 조사하며, 이들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가구의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나 HRS, ELSA, SHARE는 모두 가구를 표본추출의 단위로 활용하였다. 만약 한 가구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하는데 이들이 모두 고령자일 경우 이 중에서 한 세대(부부)를 다시 추출하였는데, 이를 ‘재정단위(financial unit)’라고 칭한다. 즉 HRS, ELSA, SHARE의 응답단위는 ‘재정단위(financial unit)’이다. 이것은 이들 사회에서 부부가 하나의 경제적 단위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하더라도 재정 단위는 각 세대의 부부라는 인식이다.

부부를 경제공동체의 단위로 보는 서구식 가족개념하에 있는 미국의 HRS, 영국의 ELSA, 유럽의 SHARE에서는 가족관계영역과 주거영역³⁾뿐 아니라 자산이나 소득영역에서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응답자가 되어서 응답한다.⁴⁾ 미국 HRS, 유럽의 SHARE에서는 패널가구의 부부가 어떻게 수입과 지출 및 자산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재정부문 응답자(Financial Respondent)’를 결정한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은행구좌를 이용하고, 함께 자산을 관리한다고 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과 자산영역을 응답하게 하고, 부부가 각각 자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개개인으로 응답단위를 구분한다. 영국의 ELSA는 부부가 각각 자산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부부를 재정공동체로 보고, 소득과 지출영역을 한 사람만 대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응답단위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부는 흔히 공동의 은행구좌를 사용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활양식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경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전체가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부를 단위로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가구원을 묶어 하나의 경제단위로 보기보다는 개인을 단위로 보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주택 등 자산은 부부

3)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치, 형태, 상태를 조사하는 영역.

4) 이때 가구원 대표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이 동일가구 내 다른 패널대상자의 정보로 호환되므로 해당 가구의 다른 패널조사자의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의 공동소유라는 의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조사대상인 고령자 세대의 경우는 아직까지 소득활동을 한 남성의 소유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가 아니라 조사 자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개인단위의 소득 및 자산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부부가 공동으로 은행구좌를 사용하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금융의 관행은 개인명의로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명의’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답하게 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조사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명의’ 중심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같은 자산이 중복 파악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이 공동명의로인 경우, 서구에서는 초기에 투자한 지분만큼 자신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동명의로인 경우 초기 투자 지분으로 나누기보다는 명의자수에 따라 1/n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자수만 물어보면 개인의 자산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표본가구의 모든 고령자를 응답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가족구성원 내부의 자원이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며, 소득이나 자산의 파악은 ‘명의’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유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지 않고, 소유방식도 공동명의로보다는 개인명의로가 보편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표 3>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별 응답단위

	HRS	ELSA	SHARE	KLoSA
표본추출 단위	해당 가구내 한 세대(부부)			가구내 45세 이상의 모든 개인
가족(자녀)	해당 가구내 한 세대(부부)			해당 가구내 한 세대(부부) 중 먼저 응답한 사람
자산 및 소득 부문 응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자산을 공동 관리할 경우 재정부문 응답자 (Financial respondent), 즉 부부 중 한 사람 - 각자 관리하는 경우 개개인이 응답하도록 선택 			명의를 기준으로 본인 자산 및 소득을 응답

나. 설문문항 개발: 제도적 현실 반영

앞서 논의한 대로 고령화 연구를 위한 국제비교를 위해 미리 공통된 핵심 주제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주제 내에서 각국의 제도적·문화적인 특징이 반영되어야 오히려 국제비교가 가능해진다. 다음은 한국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미국의 HRS, 영국의 ELSA, 유럽의 SHARE와는 달리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했던 지점들을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영역 조사의 강화와 연금영역의 제도 반영

고용과 연금영역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공적제도에 따라 은퇴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지가 달라지므로 고령자 대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된 연금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서구에서는 직장마다 지원하는 연금보험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

HRS, SHARE 그리고 ELSA의 경우 고용영역과 연금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시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연금을 연동해서 묻는 형식의 설문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 사회가 연금의 종류와 역할이 세분화되고 발달되어 고용상태와 연금을 연동시켜 설문을 구성하는 것이 응답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직장에 따라 연금제도를 묻기에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는 조기 퇴직률이 높고, 퇴직을 하면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한다기보다는 퇴직금을 이용하여 자영업으로 고용형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 사회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금에 대한 조사가 기업연금에 대한 조사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결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용과 연금을 분리된 영역에서 조사하였다. 연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약한 관계로 연금영역을 따로 만들지 않고 소득영역의 일부분으로 통합하였다. 소득 중 연금소득 부분에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군인, 공무원, 교원 등), 개인연금으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연금에 따라서 현재 납입하고 있는 부분과 만기 후 받고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묻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서구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조사대상 연령은 다른 고령자 대상 조사보다 낮은 '45세 이상'이므로⁵⁾ 이들의 고용현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고용영역에서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은퇴자, 구직자로 나누어 해당하는 고용상태에 따라 설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고용상태를 자세히 묻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패널은 다른 나라 조사에 비하여 경제활동과 일자리의 특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중년기의 고용이 불안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 후 재취업하여 노동시장 안에는 오래 머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용상의 특징이 노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45세라는 비교적 낮은 연령을 조사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기존의 고령자 대상 조사의 연구책임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위한 국제자문회의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2) 소득 및 자산영역에서 한국적 현실 반영

소득영역은 크게 임금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항목은 HRS, ELSA, SHARE에서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항목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금융제도와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항목들은 국가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이나 금융자산 조사에서 은행과 주식투자 뿐 아니라 ‘계’를 통한 거래나 자산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에 대한 조사를 설문문항에 포함시켰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금융소득 부문에서는 수표(Checking)와 CD에 대한 문항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소득조사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국가와 달리 세후 소득을 묻는 것이다. 제1차 예비조사 결과 소득 문항은 다른 문항보다 ‘응답거절’이나 ‘모르겠음’이 많은 문항이었고, 소득에 대답한 응답자들은 세전 소득보다는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세후 소득을 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세후 소득을 묻는 것이 응답을 이끌어 내는 데는 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직접적인 비교가 필요한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다음 웨이브 조사에서는 세전과 세후를 모두 질문하여 두 금액간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에 비금전적 지원 포함

HRS, ELSA, SHARE는 모두 가족영역에서 비동거 가족간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 자세히 묻고 있다. 이것은 노후에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와 각국의 노후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은퇴 후 노인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로 사적이전에 의존하게 되는가를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항들이다. 이때 선진 서구사회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하게 거론되어 비동거 가족과 패널 응답자간에 얼마의 금액이 오고 가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고령자들의 경우 비동거보다는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비동거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지원보다 비금전적인 지원, 예를 들면 직접 장을 봐 드린다든지, 김치나 반찬을 해다 드리기, 병원 치료시 자녀가 직접 병원비를 대신 내 드리기 등 서구 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가족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과 비금전적인 지원으로 나누고, 금전적인 지원을 다시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비동거 가족간의 지원을 포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제3차 예비조사 결과를 유럽의 SHARE의 1차년도(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럽의 고령자들이 가족간에 자주 왕래하고, 자녀에

게 금전적인 지원을 주는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유럽에 비해 한국의 고령자들은 자녀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동거 가족간의 경제적인 지원에서 포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꼭 금전적인 지원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형태로 지원을 주고받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건강영역조사에 우리나라의 특징 반영

건강영역 조사에서는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고령자의 건강 특징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예컨대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서 질문하지 않는 간질환에 대하여 질문한다. 간질환은 우리나라 10대 만성질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인 것에 비해 서구사회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져 포함되지 않았다.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고령자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때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국내 노인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한국형으로 표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K-MMSE 버전을 사용하여 서구와는 노인들의 현실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였다.

다. 우리나라 고령자에게 적합한 방식의 척도 개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조사대상자가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설문 문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척도를 응답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령화연구패널팀은 설문문항 중 응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과 척도를 중심으로 두세 가지씩의 대안적 척도를 구성하여 각각의 설문문항이 우리나라의 고연령 응답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응답되는지 테스트하였고, 그 결과를 본조사의 설문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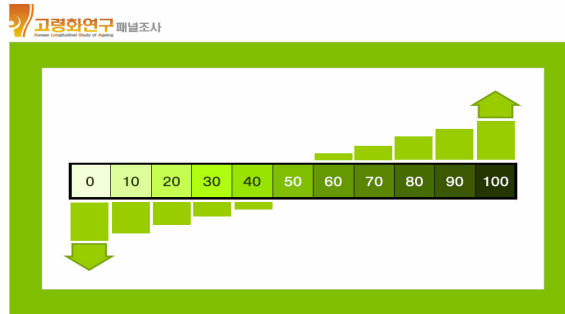
1) 주관적 판단과 동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10점 척도 사용

HRS, ELSA, SHARE에서는 모두 응답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전체를 통해서 향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주관적 기대감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 영역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퍼센트로 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면 0,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100으로 응답하고 확신의 정도에 따라 그 중간의 어떤 숫자 값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퍼센트 개념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 우리나라 응답자들이 100점 척도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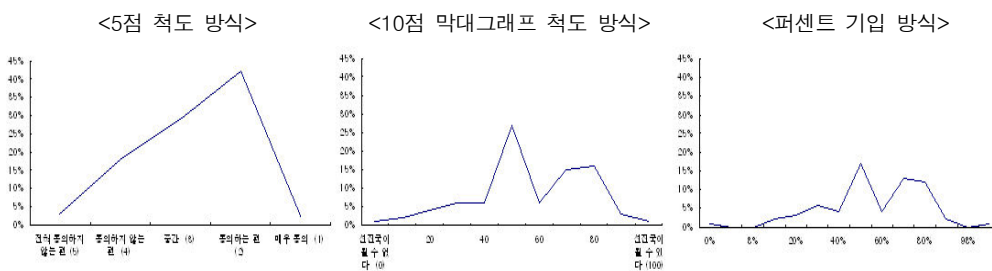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비교연구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의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흔히 사용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 보다 세밀한 정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 고령자와의 비교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령화연구패널팀은 예비 조사를 통하여 대체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척도로 ① 100점 척도, ② 10점 척도 (막대그래프, 그림 참조), ③ 기존의 5점 척도를 시험해 보았다.

[그림 1] 퍼센티지 개념 대신 사용한 10점 막대 척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퍼센트 방식의 100점 척도로 응답을 요구했을 때에는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른 방식의 척도로 답을 요구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또한 응답을 한 사람들의 응답내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10점 척도 방식의 경우 응답분포가 퍼센트 기입방식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의 분포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척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분포를 보였다(그림 2 참조). 응답분포를 가지고 보면,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사용한 척도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과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 테스트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의 본조사에서는 10점 막대그래프 척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2] 척도 방식별 응답분포



<표 4> 척도 방식별 응답률

(단위: 명, %)

	5점 척도 방식	막대그래프 방식	퍼센트 방식
전 체	506 (100)	506 (100)	506 (100)
응답	475 (94)	444 (88)	328 (65)
모르겠음	3 (6)	25 (5)	175 (34)
응답거부	0 (0)	37 (7)	3 (1)

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질문한 경우.

5점 척도의 구성(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는 편 ③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④ 동의하는 편 ⑤ 매우 동의함).

2)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척도 구성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사용한 척도 구성을 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면, 두번째 척도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하는 강도가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다’는 감정표현을 할 때,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매우 좋다’로 표현하는데 비하여 미국인들은 ‘최고(Excellent)’라는 표현도 흔히 사용한다. 따라서 같은 5점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1점에서 5점까지 각 점수를 어떤 표현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건강영역 설문 중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미국에서는 ‘① 최상(Excellent) ② 매우 좋음(very good) ③ 좋음(good) ④ 보통(fair) ⑤ 나쁨(bad)’이라는 5점 척도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표현방식의 범위를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으로 ‘보통’을 가운데에 두는 5점 척도 구성이 자연스럽다.

고령화연구패널팀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이 ③의 값을 갖는 척도 A와 ‘보통’이 ④의 값을 갖는 척도 B를 비교하여 보면, 척도 B가 척도 A보다 건강상태에 대하여 더 낮은 값을 나타낸다. 같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두 척도는 서로 다른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의사표현의 강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HRS, ELSA, SHARE와 함께 건강에 관한 자가진단 문항을 가지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다. 건강영역 설문의 맨 앞과 맨 마지막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두번 질문하되 각각 다른 척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 5> 척도 유형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응답

(단위: 명, %)

	척도 A		척도 B	
	보 기	빈도(비율)	보 기	빈도(비율)
①	매우 좋다	6(2.4)	최상	2(0.8)
②	좋은 편이다	78(30.8)	매우 좋음	22(8.7)
③	보통이다	68(26.9)	좋음	70(27.7)
④	나쁜 편이다	75(29.6)	보통	71(28.1)
⑤	매우 나쁘다	26(10.3)	나쁜 편	88(34.8)
평균값	3.15		3.87	
사례수	253		253	
평균차(S.E.)	0.73(0.09)			
t값(p값)	7.94(0.00)			

자료: KLoSA 제1차 예비조사 자료.

그런데 건강영역은 여러 가지 질병과 건강관련 습관,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위치와 순서, 즉 건강영역 설문지 맨 앞에 나오느냐 마지막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령화 연구패널조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⁶⁾ 무작위로 먼저 나오는 질문이 결정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IV. 결론: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의 조건

1990년대 이후로는 국제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간 데이터의 네트워크가 예전보다 용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제간 연구의 증가와 국제비교 연구가 더욱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연구를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핵심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주요 영역이 비교대상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HRS, ELSA, SHARE 등 다른 나라의 고령자 대상 패널자료와의 비교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조사를 설계하였으며, 가족, 건강, 고용과 소득, 자산, 주관적 의식 등을 공통된 주요 조사영역으로 삼고 있다.

둘째,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각각의 국가에서 제대로 포착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설문항목이 구성되어야 한다. 고령화패널조사는 우리나라 공적

6)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 방식을 이용한다.

연금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등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고용상의 관행이나 선택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까지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이나 재산관리상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한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이외에도 조사의 신뢰도와 응답률은 보다 근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예비조사의 개인 응답률은 71.9%로 HRS의 초년도 응답률 82%(가구응답률)보다는 낮지만 ELSA의 67%나 SHARE의 61.8%(가구응답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6년 8월부터 시작되는 본조사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도 패널유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 **KL**

<참고문헌>

강석훈(1997),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화 시사점: 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신동균(1998),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신현구(2006),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의 시행 및 주요 결과」, 『노동리뷰』 8월호(통권 20호).
 이상호(2006), “서구 주요 패널의 조사전략 변화와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통권 16호).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계획서」(미간행).

Biemer, Paul P. & Lyberg Lars E.(2003), *Introduction to Surver Quality*, John Wiley & Sons, Hoboken, New Jersey.

Groves, R. M., F. J. Fowler, M. P. Couper, J. M. Lepkowski, E. Singer, R. Tourangeau. (2004), *Survey Method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http://hrsonline.isr.umich.edu>(미국의 HRS 웹사이트)

<http://www.ifs.org.uk/elsa/>(영국 ELSA 웹사이트)

<http://www.share-project.org/>(유럽의 SHARE 웹사이트)

<http://www.klosa.re.kr>(한국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웹사이트)

<http://www.lisproject.org/>(LIS, LES 웹사이트)

<http://www.iue.it/LIB/Guides/Economics/Statistics/Descriptions/cnef.shtml>(CNEF 웹사이트)